목포항, 목포권역 생산 35~50% 좌우

■목포항 발전전략 연구용역

자유무역지역 지정 위해 항만 배후단지 확충 필요

서남권 6개 시·군 통합…물류·관광 중심축 개발을

목포항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목포권역 전체 산업생산액의 35~50%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17일 목포 지방해양항만청(청장 김삼열)에 따르면 '목포항 발전전략 연구용역'결과 ▲항만산업 직접효과 1.6~2.9% ▲항만산업 생산유발효과 3.1~3.4% ▲항만의존산업 파급효과 29~44% 등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목포권역 전체 산업생산액의 35~50%에 이르렀다.

목포항만청은 지난해 8월 한국종합물류연구원에 의뢰해 '미래 목포항의 성장동력 발굴 및 실용적인 실천전략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'을 추진, 최근 완료했다.

연구용역에 따르면 목포항이 '21세기 서남권 물류 및 해양관광레저 허브역할을 수행하는 미항'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신항 2단계 3선석 등 총 11개 선석을 확충하고, 목포항을 크게 '물류중심축'과 '해양관광레저 중심축' 등 두 개의 축으로 나눠 육성할 필요성이 제기됐다.

대불부두부터 용당, 신항까지 '물류중심축'은 무역항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평화광장부터 남항, 삼학도, 북항까지 '해양관광레저 중심축'은 해양관광·레저중심으로 육성하자는 것.

또 목포항 항만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위해서는 현재 47만3천㎡규모의 항만 배후단지를 50만㎡이상으로 확충하고 목포항의 부두 재배치와 포트(port) 세일 등을 통해 물동량 창출을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.

목포항은 자유무역지역 지정요건인 ▲물동량 1천만t 이상 처리 ▲정기국제 컨테이너선 항로개설 ▲3만t급 컨테이너선박 전용부두 등 조건을 갖췄고 항만구역 육상구역 면적이 약간 미달상태이다.

이 밖에도 미래 목포항 발전을 위해서는 목포항 배후 산업세력이 취약한 점을 고려해 서남권 6개 시·군 등과 통합, 서남권 광역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풍력플랜트 기자재 산업 등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적극 육성해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.

현재 목포항은 직접 배후세력권에 항만 물동량을 창출할 수 있는 산업단지가 부족해 경쟁력이 취약하고, 넓은 항만구역에 작은 규모의 부두가 산재해 항만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.

김삼열 목포항만청장은 "이번 용역결과가 미래 목포항에 투영될 수 있도록 정책제안 등을 통해 적극 추진할 것"이라고 말했다.

/서부취재본부=이상선기자 sslee@

해남에 섬유질 사료공장 준공

年 2만 4000t 생산 규모

사료비 9억5천만원 절약

해남에 섬유질 사료공장이 세워져 연간 10억여원의 사료비용 절감효과가 기대된다.

해남군과 해남축협은 사업비 11억원을 투입해 18일 해남읍 복평리 인근에 연면적 1천676㎡ 규모의 '섬유질 사료공장'을 준공,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갔다.〈사진〉

사료공장은 해남에서 생산된 조사료를 활용해 하루 100t, 연간 2만4천t의 섬유질 사료를 생산, 축산농가에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다.

사료공장 완공에 따라 ▲축산농가에 안정적으로 섬유질 사료공급 ▲가축의 사양 단계에 맞춘 체계적인 영양공급 ▲고급육 생산 ▲일손 절감 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.

현재 한우 등 가축 1마리당 연간 평균 197만8천원의 배합사료비와 조사료비가 들어가고 있으나 섬유질 사료를 이용, 혼합사료를 제공할 경우 1마리당 178만7천원이 소요돼 평균 19만1천원을 절약할 수 있다.

하루 생산량인 100t을 이용하면 매일 5천 마리에 혼합사료를 제공할 수 있어 연평균 9억5천500만원의 사료비를 줄일 수 있는 셈이다.

해남군 관계자는 "최상의 섬유질 사료 급여로 소비자가 원하는 안전하고 맛이 좋은 고급육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"고 말했다.

한편 해남지역에서는 한우 2만7천여 마리, 젖소 1천548마리, 돼지 4만2천700여 마리 등 모두 7만 1천800여 마리가 사육되고 있다.

/서부취재본부=박희석기자 dia@

"공과금 수납 대행"

신안군-압해새마을금고 계약

신안군은 압해 새마을금고(이사장 강달수)와 최근 지방세 등 각종 공과금에 대한 수납대행계약을 체결했다.

군은 압해농협과 압해 우체국에서 지방세 등 공과금을 수납해 왔으나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압해 새마을금고와도 공과금 수납대행계약을 체결했다.

군 관계자는 "올 하반기부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수납대행계약이 체결되면 보다 편리하게 각종 공과금을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"고 말했다.

/서부취재본부=조완남기자 wncho@

함평 나비대축제 손님맞이 위생점검 함평군 위생계 직원들이 18일 다음달 23일 개최되는'제12회 함평나비대축제'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지도점검을 벌이고 있다. 군은 관내 식품위생업소 352개소를 대상으로 위생 교육 및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.

/서부취재본부=황운학기자 hwang@

목포항만청, 관제센터에 어선 통신망 설치

내달부터 정보 제공…상선과 충돌사고 예방

최근 국내 연안에서 어선과 상선간 충돌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목포, 완도,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어선과 교신할 수 있는 무선설비가 설치됐다.

목포 지방해양항만청(청장 김삼열)은 사업비 1천만원을 들여 목포, 완도,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중단파대통신기(SSB) 및 27메가 헤르츠(Mhz)대 등 어선과 통신할 수 있는 무선설비를 설치, 다음달 초순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.

그동안 관제센터에는 일반 상선과 통신은 가능하지만, 어선과는 통신할 수 있는 무선설비가 없었다.

이 때문에 어선에 대해 필요한 정보 제공과 긴급 시 안전한 조치를 할 수 없어 어선과 상선간 충돌사고 예방을 위한 관제에 한계가 있었다.

김삼열 목포 항만청장은 "관내 운항 어선에 대한 무선설비 설치 실태를 조사하는 등 어선의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"고 말했다.

/서부취재본부=이상선기자 sslee@

"김 우량종자 분양"

수산사업소 목포지소

전남도 수산기술사업소 목포지소(소장 이황복)는 오는 22일부터 한달간 김 우량종자(유리 사상체)를 분양한다.

이번 분양하는 김 종자는 목포·무안·신안 김 양식장에서 생산되는 모무늬돌김과 잇바디돌김, 일반 김 등 우수한 품종의 엽체를 수년간 선발해 배양·증식해온 우량종이다. 종자분양 대상은 목포, 신안, 무안 지역의 김 양식어가 중 종묘배양 어업인에 한하며 1인당 10g이내로 19일까지 신청받는다. /서부취재본부=이상선기자 sslee@

신안 교육지원사업 효과 '톡톡'

고교생 늘고 명문대 진학 증가

신안군의 교육지원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올리고 있다.

18일 신안군에 따르면 매년 3% 수준의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5년에 572명에 불과하던 관내 고등학생 수가 2010년도에는 662명으로 오히려 12.6%가 늘어났다.

올해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 192명 중에서 대학진학이 목표인 인문계열을 졸업한 학생은 모두 119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도초고 문가영 학생이 서울대 인문계열에 합격한 것을 비롯해 교육대학 5명, 수도권 4년제대 10명, 전남대 6명 등 21명(18%)이 합격해 화제가 됐다.

이러한 교육성과는 군이 '농어촌이 사는 길은 교육환경 개선에 있다'는 신념으로 교육지원사업을 군정 최우선 시책으로 추진하면서 비롯됐다.

군은 지난 2007년 7월 전국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교육지원전담부서인 '교육지원단'신설을 시작으로 ▲장학회 설립(기금 53억) ▲농산어촌 우수고 및 기숙형 공립학교 지원(1개교 10억) ▲플부라이트(Fulbright)-신안 영어캠프 개최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쳐왔다.

/서부취재본부=조완남기자 wncho@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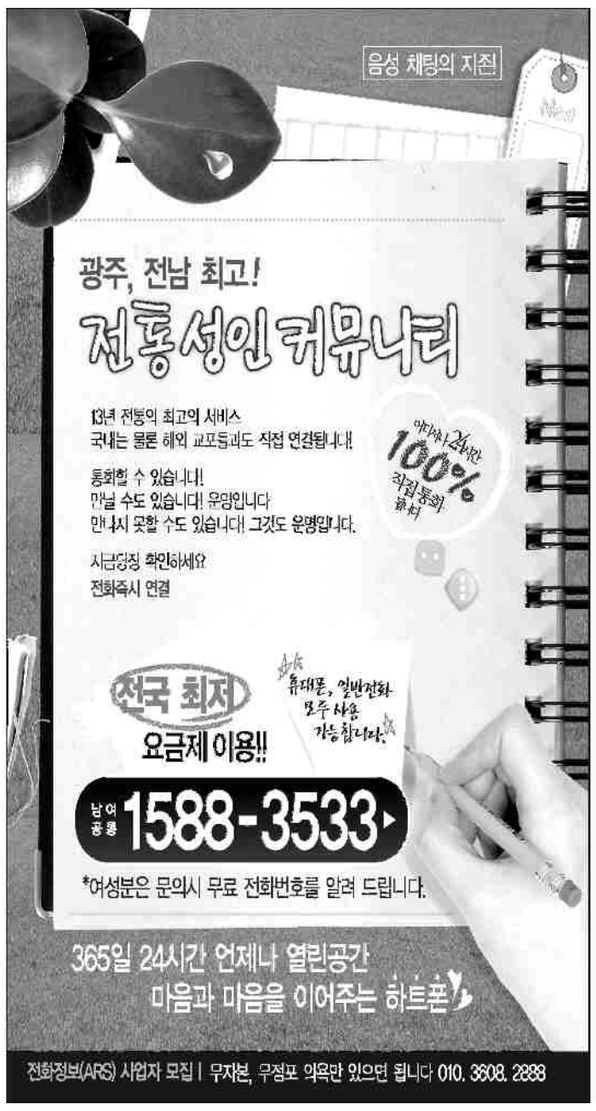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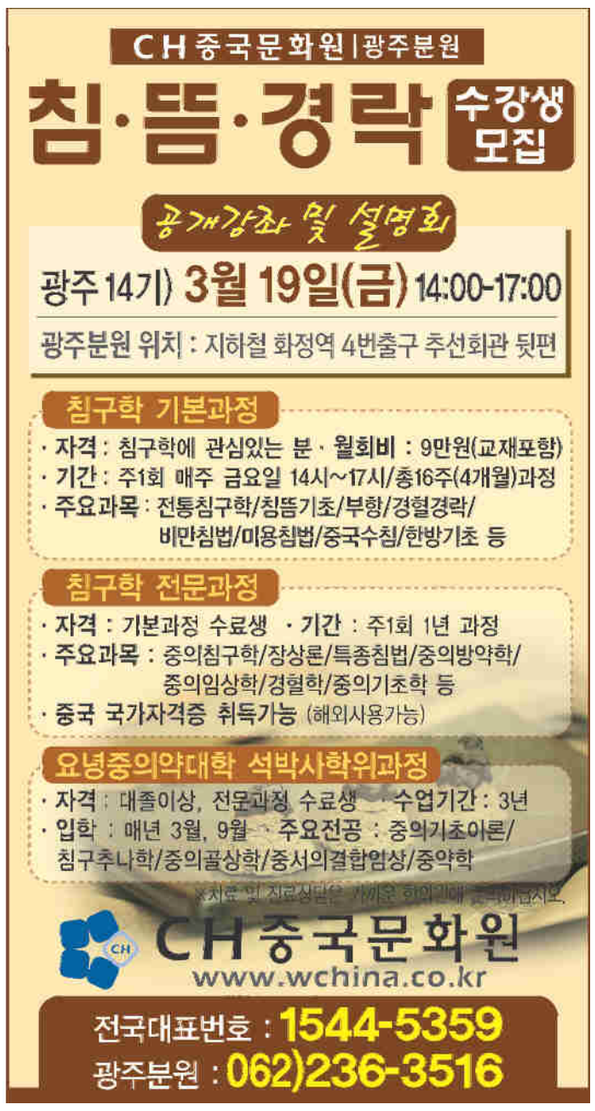
美 순양함 목포항 입항

3함대와 '훈련·친선교류'

해군 제3함대사령부(사령관 임종철)는 미국 해군 소속 순양함으로는 최초로 샤일로(SHILOH)함〈사진〉이 '10년 FE(Foal Eagle) 연습 및 친선교류'를 위해 19일 목포항에 입항한다고 밝혔다.

이 함정은 오는 23일까지 4박 5일간 머물며 해군 제3함대사령부와의 군사교류를 비롯해 한·미 장병 사회봉사활동, 목포시청 방문, 문화·유적지 답사, 축구·농구 등 운동경기 등 각종 친선활동을 갖는다.

특히 20일 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전남 도립국악단 토요공연을 관람하는 등 '한국의 멋과 예술'을 체험하고, 목포시 고하도 공생재활원에서 한·미 장병이 함께 사회 봉사활동도 할 예정이다.

3함대 관계자는 "샤일로함은 '10 FE' 훈련기간 동안 3함대 소속 함정과 해상 교통로 보호를 위한 각종 훈련을 시행해 연합 작전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"고 말했다.

한편 '샤일로함'(만재 배수량 9천957t)은 길이 172.8m, 폭 16.8m 규모로 350여 명의 승무원이 승선하며 5인치 함포와 토마호크 미시일, MK 46 어뢰 등의 무장을 갖추고 있다. /서부취재본부=김병관기자 dss6116@